

원저

膏肓과 膏肓俞에 관한 文獻的 考察

소재진* · 이운호** · 김창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Abstract

A STUDY ON GO-HWANG(膏肓) AND GO-HWANG-SU(膏肓俞)

So Jae-jin*, Lee Yun-ho** and Kim Chang-hwan**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riental Medical Hospital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 & Methods: In order to ascertain the names, locations, the way of getting acu-point and indications for moxibustion about Ko-Hwang(膏肓) and Go-Hwang-Su(膏肓俞), I have translated the text for Ko-Hwang(膏肓) and Go-Hwang-Su(膏肓俞) collected in several relative classical books, and performed literal investigation about it. Through the study,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Results & Conclusions:

1. The two words Go(膏) and Hwang(肓) have different concepts each other originally, and Go-Hwang(膏肓) is the abbreviation of the words "Upon the Hwang(肓), Under the Go(膏)", which means "A gap of Heart and diaphragm" that is under the heart and on the diaphragm

2. Go-Hwang-Su(膏肓俞) is the acu-point which can treat the diseases located in the gap of Go(膏) and Hwang(肓), so they must not be named as Go-Hwang(膏肓) or Go-Hwang-Hyul(膏肓穴).

· 접수 : 2003년 9월 15일 · 수정 : 2003년 9월 18일 · 채택 : 2003년 9월 20일
· 교신저자 : 우현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Tel. 958-9202 E-mail : mari10@hanmail.net

3. The origination of Go-Hwang-Su(膏肓俞) is speculated as the interval of Hwang-Bo-Mil(皇甫謐) and Son-Sa-Mak(孫思邈). And I think it had been created by Son-Sa-Mak(孫思邈) up to now.

4. The words "Four ribs and Three spaces(四肋三間)" those are founded in the text of The Entrance of Medicine(醫學入門) and The Great Success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針灸大成) are either the words those had been quoted from The Bible of Helping Life by Acupuncture and Moxibustion(針灸資生經) in wrong way, or the mis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mind of Son-Sa-Mak(孫思邈) as being quoted in the text. So you should know it exactly as Son-Sa-Mak(孫思邈) had said.

5. When you search the acu-point Go-Hwang-Su(膏肓俞), you must pull the arms of patients forwardly to reveal the acu-point, because it is covered by the scapula in normal posture.

6. The indications for the use of Go-Hwang-Su(膏肓俞) are same as mentioned in this study. And it can grow the Yang-Gi(陽氣) more prosperous.

Key words: Ko-Hwang(膏肓), Go-Hwang-Su(膏肓俞)

I. 緒 論

膏肓은 春秋時代 晉나라의 諸侯인 晉 景公과, 同時代 秦나라의 醫師인 緩(姓은 高요 이름은 緩이니¹⁾, 흔히 醫緩²⁾ 또는 秦緩³⁾이라고도 부른다)에 관한 유명한 故事를 통하여 韓醫師가 아닌 일반 大衆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膏肓俞는 足太陽膀胱經의 38번째 經穴으로써 肺結核 胸膜炎 氣管支炎 神經衰弱 등에 應用되어져 오던 穴이므로⁴⁾, 韓醫師들도 周知하고 있는 經穴이다.

하지만 針灸甲乙經에 이르기까지는 膏肓俞라는 穴이 言及된 內容이 發見되지 않고 있으며, 現存하는 黃帝內經과 針灸甲乙經에서는 膏와 肓이 各各 五臟에 準하는 重要な 概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事實^{5),6)}에 이르러서는 曷상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때로는 膏肓과 膏肓俞라는 名稱이 混同되어 使用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著者는 膏肓과 膏肓俞에 關聯된 文獻을 相考하여 考察함으로써, 膏肓과 膏肓俞에 關한 올바른 理解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膏肓과 膏肓俞에 關聯된 內容을

關聯 文獻에서 拔萃하여 直譯하고, 原文에는 없지만 文脈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必要한 경우에는, 直譯된 文章에 補充 說明을 挿入하거나 덧붙이되, 括弧로 處理하여 原文의 直譯과는 區分하였다. 引用된 文件의 出處나 補充 說明은 尾註로 處理하지 않고 모두 脚註로 處理하여, 論文을 읽는 사람들이 必要時 곧바로 關聯 文獻을 對照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土臺로 膏肓과 膏肓俞의 名稱과 位置 및 膏肓俞의 取穴法과 主治症에 關하여 考察해보고, 그 結果를 다음과 같이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原文引用 및 解釋】

■ 春秋左氏傳 成公 十年²⁾

晉侯夢大厲, 被髮及地, 搏膺而踊, 曰, “殺余孫, 不義. 余得請於帝矣!” 壞大門及寢門而入. 公懼, 入于室. 又壞戶. 公覺, 召桑田巫. 巫言如夢. 公曰, “何如?” 曰, “不食新矣.” 公疾病, 求醫于秦. 秦伯使醫緩爲之. 未至, 公夢疾爲二豎子, 曰, “彼, 良醫也, 懼傷我, 焉逃

之?”其一曰,“居肓之上,膏之下,若我何?”醫至,曰,“疾不可爲也,在肓之上,膏之下,攻之不可,達之不及,藥不至焉,不可爲也。”公曰,“良醫也。”厚爲之禮而歸之。六月丙午,晉侯欲麥,使甸人獻麥,饋人爲之。召桑田巫,示而殺之。將食,張,如廁,陷而卒。小臣有晨夢負公以登天,及日中,負晉侯出諸廁,遂以爲殉。

晉侯(晉나라의 諸侯)가 꿈을 꾸었는데, 大厲(큰 귀신)²⁾가 머리카락을 땅에 닿게 풀어헤치고, 가슴을 두드리고, 뛰오르면서 말하기를 “나의 후손을 죽인 것은 義롭지 못한 짓이다. 내가 上帝께(怨恨을 아뢰어 복수하기를) 請하였노라.”하면서, 大門을 무너뜨리고 寢室에 이르러 門으로 들어오려 하였다. 公(晉侯)이 두려워서 寢室 안으로 들어가니, 또한 戶를 무너뜨리는데, 公이 잠에서 깨어났다.

桑田(晉나라의 畝)의 무당을 불러서 물어보니, 무당도 꿈에서 본 바와 같이 鬼神이 怒하였다고 말하였다. 公이 묻기를 “(吉凶이) 어떠한가?”하니, (무당이) 대답하기를 “새것을 드시지 못하옵니다(不食新矣)라 하였는데, 註에 따르면 “公이 새로 나는 보리(麥)를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라 하였다. 즉,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의 은유한 표현이다.” 하였다.

公의 病이 깊어져서 醫師를 (이웃인) 秦나라에서 구하니, 秦伯(秦나라 諸侯)이 醫師 緩(以下 醫緩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治療하게 하였는데, (醫緩이 晉나라에) 아직 이르기 전에, 公(晉侯)이 꿈을 꾸었는데, 疾病이 두 豎子(童子)⁷⁾가 되어 (나타나) 말하기를 “저 사람(醫緩)은 훌륭한 의사(良醫)라서 우리를 다치게 할까 두려우니, 어떻게 도망갈까?” 하니, 그중 하나가 말하기를 “肓의 위쪽 膏의 아래쪽에 居處하면, 네(醫緩)가 나를 어떻게하겠는가?” 하였다.(左傳의 註에 따르면 “肓은 膈也요, 心下가 爲膏라” 하였으므로, 橫膈膜의 위쪽 心臟下部的 아래쪽이 된다.)

醫師(醫緩)가 와서 (진찰하고) 말하기를 “疾病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疾病이) 肓의 위쪽 膏의 아래

쪽에 있어서, (뜸으로) 攻擊할 수도 없고(原文에 “攻之不可”라 하였는데, 註에 “攻은 熨灸也니 言不可以火攻”이라 하였다.), (鍼으로) 到達할 수도 없으며(原文에 “達之不及”이라 하였는데, 註에 “言不可以針達”이라 하였다), 藥으로도 이를 수 없으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公(晉侯)이 말하기를 “훌륭한 醫師(良醫)로다.”하고, 厚히 禮를 베풀어서 돌려보냈다.

六月(오즘의 四月) 丙午日에 晉侯가 (餗)보리를 먹고 싶어 해서, 甸人(諸侯를 위하여 公田을 맡은 벼슬아치)으로 하여금 보리를 獻納하게 하고, 饋人(飲食을 만드는 것을 맡은 者)으로 하여금 그것(보리밥이 있는 宴會)을 만들게 하고, 桑田의 무당을 불러서 (자기가 새 보리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죽이려 하였다. 막 飲食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더부룩해져서 廁間에 갔다가 빠져서 죽었다.

(무당이 말하기를) “小臣이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公(晉侯)을 업고 하늘에 올라가서 해의 가운데까지 이르렀습니다.”하고, 晉侯를 廁間에서 업고 나서, 마침내 따라 죽었다.

■ 靈樞 九鍼十二原 第一^{8),9)}

五臟有六腑, 六腑有十二原, 十二原出於四關, 四關主治五臟, 五臟有疾, 當取之十二原. 十二原者, 五臟之所以稟三百六十五節氣味也. 五臟有疾也, 應出十二原, 十二原各有所出, 明知其原, 視可應, 而知五臟之害矣. 陽中之少陰, 肺也, 其原出於太淵, 太淵二. 陽中之太陽, 心也, 其原出於太陵, 太陵二. 陰中之少陽, 肝也, 其原出於太衝, 太衝二. 陰中之至陰, 脾也, 其原出於太白, 太白二. 陰中之太陰, 腎也, 其原出於太谿, 太谿二. 膏之原, 出於鳩尾, 鳩尾一. 肓之原, 出於臍臑, 臍臑一. 凡此十二原者, 主治五臟六腑之有疾者也. 脹取三陽, 癢泄取三陰.

五臟에는 六腑가 있고 六腑에는 열두 개의 原穴(以下 十二原이라 한다.)이 있는데, 十二原은 四關

(兩肘와 兩膝이니 人體의 四大關節이라는 뜻)¹⁰⁾에서 (주로) 나오는지라 四關(에 있는 穴)은 五臟을 맡아서 治療할 수 있으므로, 五臟에 疾病이 있으면 마땅히 十二原을 取해야 한다.

十二原이라는 것은 五臟이 三百六十五節에게 氣味를 보내주는 곳이니, 五臟에 疾病이 있으면 十二原에 相應하여 나와서, 十二原에 各各 나오는 바가 있으니, 그 根源을 밝게 알면, 가히 相應하는 바를 알아서 五臟의 傷害를 알 수 있다.

陽 中의 少陰은 肺인데 그 原穴(以下 原이라 함)은 太淵에서 나오니, 太淵은 (穴이) 둘이다. 陽 中의 太陽은 心인데 그 原은 大陵에서 나오니, 大陵은 (穴이) 둘이다. 陰 中의 少陽은 肝인데 그 原은 太衝에서 나오니, 太衝은 (穴이) 둘이다. 陰 中의 至陰은 脾인데 그 原은 太白에서 나오니, 太白은 (穴이) 둘이다. 陰 中의 太陰은 腎인데 그 原은 太谿에서 나오니, 太谿은 (穴이) 둘이다. 膏의 原은 鳩尾에서 나오니, 鳩尾는 (穴이) 하나이다. 肓의 原은 臍(氣海의 異名)¹¹⁾에서 나오니, 臍是 (穴이) 하나이다. 무릇 이 十二原이라는 것은 五臟六腑에 疾病이 있는 것을 맡아서 治療하니, 脹은 三陽에서 取하고 癃泄은 三陰에서 取한다.

■ 素問 腹中論篇 第四十¹²⁾

帝曰：人有身體脾股胛皆腫，環齊而痛，是爲何病。岐伯曰：病名伏梁，此風根也。其氣溢於大腸而著於肓，肓之原在齊下，故環齊而痛也。不可動之，動之爲水溺瀦之病。

黃帝가 (물어) 말하기를 “身體의 脾(장판지)와 股(허벅지)와 胛(정강이)이 모두 붓고 배꼽 둘레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病입니까?” 하니, 岐伯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말했다. “病名은 伏梁이니, 이 病은 風이 根源입니다. 그 氣가 大腸에 넘치고 肓에 붙었는데, 肓의 原은 齊下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배꼽 둘레가 아픈 것입니다. (함부로)動하게 해

서는 안 되니, 動하게 하면 水溺瀦之病이 됩니다.”

■ 備急千金要方¹³⁾

膏肓俞 無所不治 主羸瘦虛損 夢中失精 上氣欬逆 狂惑忘誤. 取穴法 令人正坐 曲脊 申兩手 以臂著膝前 令正直 手大指與膝頭齊 以物支肘 勿令臂得動搖. 從胛骨上角 摸索 至胛骨下頭 其間 當有四肋三間 灸中間 依胛骨之裏 肋間空 去胛骨 容側指許 摩膂肉之表 肋間空處 按之 自覺牽引胸戶中. 灸兩胛中各一處 至六百壯 多至千壯 當覺氣下鬱鬱然 如流水狀. 亦當有所下出 若無停痰宿疾 則無所下也. 若病人已困 不能正坐 當令側臥 挽上臂令前 求取穴 灸之也. 求穴 大較以右手 從右肩上 住指頭 表所不及者 是也. 左手亦然 乃以前法灸之. 若不能久正坐 當伸兩臂者 亦可伏衣襖上 伸兩臂 令人挽 兩胛骨使相離. 不爾 胛骨覆穴 不可得也. 所伏衣襖 當令大小常定, 不爾 則失其穴也. 此灸訖後 令人陽氣康盛 當消息以自補養 取身體平復. 其穴 近第五椎相準 望取之. 論曰 昔秦緩 不救晉侯之疾 以其在膏之上肓之下 針藥所不及 卽此穴 是也. 時人拙不能求得此穴 所以宿痾難遣 若能用心方便求得 灸之 無疾不愈矣.

膏肓俞는 治療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羸瘦虛損 夢中失精 上氣欬逆 狂惑忘誤를 (모두) 主掌(管掌)한다. 取穴法은 사람으로 하여금 正坐하여 등을 구부리고, 두 손을 뻗어서 팔을 무릎 앞에 두게 하되 엄지 손가락을 무릎 끄트머리와 나란히 두게 하고, 물건으로 팔꿈치를 지탱하여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肩胛骨의 위쪽 모서리로부터 더듬어 찾아서 肩胛骨의 아래 끄트머리까지 이르면, 그 사이에 마땅히 네 개의 肋骨과 세 곳의 빈 空間이 있을 터이니, 가운데 空間을 뜯는다.

肩胛骨의 안쪽(內側)을 依支하고 있는 肋骨 사이의 빈 空間은, 肩胛骨로부터의 거리가 側指許만큼 容納하니(肩胛骨의 邊緣으로부터 손가락 넓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의미), 등 筋肉의 表面을 문지르다가 肋

뼈 사이의 빈 곳을 누르면 흉곽 안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肩胛骨 가운데 각 한 곳(즉 膏肓俞穴)을 둘 다 뜬 뒤 六百壯까지 뜨고, 많게는 千壯까지 이르게 하면, 마땅히 氣가 鬱鬱然히 물 흐르듯이 下降하는 것을 느낄 것이요, 또한 마땅히 아래로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만약 停痰이나 宿疾이 없으면 아래로 나오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만약 病人이 이미 困極해져서 正坐할 수 없으면, 마땅히 側臥하게 하고, 上臂를 당겨서 앞쪽으로 향하게 하여 穴을 찾아서 取하여 뜬을 뜨라. 穴을 찾을 때는 대략 오른 손을 가지고 오른쪽 어깨 위를 쫓아서 손가락 끝머리를 두어서 標識할 수 없는 곳이 이것이다. 왼손도 또한 그러하니 앞의 方法으로 뜬을 뜨라.

만약 오랫동안 正坐할 수 없어서 마땅히 양팔을 뻗어야 하는 者는 또한 衣服 위에 엎드려서 양쪽 팔을 뻗어도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팔을) 잡아당기게 하여 양쪽 肩胛骨이 서로 떨어지게 해야 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肩胛骨이 穴을 덮어서 (穴 자리를) 얻을 수 없다. (환자가 그 위에) 엎드리는 衣服은 마땅히 크기가 항상 일정해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 穴을 잃을 것이다.

이 뜬(膏肓俞에 뜬 뜨는 것)은 뜬을 뜨고 난 뒤에 사람으로 하여금 陽氣를 康盛하게 하니, 마땅히 (陽氣의 盛衰를) 살펴서 스스로 補養하면 身體를 平安하게 恢復할 수 있다.

그 穴자리는 第五椎와 서로 나란한 곳에 가까우니, 비교해 보고 取하라.

論에 이르기를, 옛날에 秦緩이 晉侯의 疾病을 救援해 주지 못한 것은 그 疾病이 膏의 위쪽 肓의 아래쪽에 있어서 針과 藥이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니, 곧 이 穴이다. 當時 사람들이 拙劣하여 능히 이 穴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묵은 病을 除去하기 어려웠으니, 만약 능히 마음으로 方便을 찾아서 뜬 뜬다면

낮지 않을 疾病이 없을 것이다.

■ 醫學入門^{14),15)}

膏肓 主陽氣虧弱 諸虛痼冷 夢遺 上氣 飢逆 膈噎 狂惑 忘誤 百病. 取穴 須令患人就床平坐 曲膝齊胸 以兩手圍其足膝 使胛骨開離 勿令動搖 以指 按四椎微下一分 五椎微上二分 點墨記之 卽以墨 平畫相去六寸許 四肋三間 胛骨之裏 肋間空處 容側指許. 摩膂肉之表 筋骨空處 按之 患者 覺牽引胸戶中 手指痺 卽眞穴也. 灸至百壯千壯. 灸後 覺氣壅盛 可灸氣海及足三里 瀉火實下 灸後 令人陽盛 當消息以自保養 不可縱慾.

膏肓은 陽氣虧弱 諸虛痼冷 夢遺 上氣 飢逆 膈噎 狂惑 忘誤 등의 百病을 主掌한다. 穴을 取할 때에는 모름지기 患者로 하여금 寢牀에 나아가 平安하게 앉게 하고, 무릎을 굽혀서 가슴과 나란하게 하고, 두 손으로 발과 무릎을 감싸게 하여, 肩胛骨로 하여금 열려서 벌어지게 하고, 動搖하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四椎에서 一分정도 약간 아래쪽, 五椎에서 二分정도 약간 위쪽을 찾아서 먹을 찍어서 표시하고, 먹으로(표시한 곳으로)부터 나란히 서로 六寸쯤 떨어지게 그으면(脊椎로부터 各各 三寸쯤 떨어진 곳), 四肋三間의 胛骨之裏인 肋間空處이니 (肩胛骨로부터) 손가락 넓이만큼 (공간을) 용납한다. 등 筋肉의 表面을 쓰다듬다가 筋骨의 空處를 눌러서 患者가 흉곽 속으로 당기는 느낌을 느끼고 손가락이 저림을 느끼게 되면 곧 참 된 穴자리이다.

뜸은 百壯 千壯까지 이르게 한다. 뜬 뒤 氣가 壅盛해지는 것을 느끼면 氣海와 足三里를 뜬 뜬 뒤 氣가 實한 것을 瀉하여 내려가게 할 수 있다.

(膏肓俞)에 뜬을 뜨고 나면 사람으로 하여금 陽氣가 盛해지게 하니, 마땅히 (陽氣의 盛衰를) 살펴 스스로 保養할 것이요, 慾心대로 마음껏 해서는 안 된다.

■ 針灸大成^{16),17)}

膏肓俞：四椎下一分 五椎上二分 兩旁相去脊各三

寸 四肋三間 正坐屈脊 伸兩手 以臂着膝前令端直 手大指與膝頭齊 以物支肘 毋令動搖取之. 銅人 灸百壯多至五百壯. 當覺氣下躑躅然似水流之狀 亦當有所下 若無停痰宿飲 則無所下也. 如病人已困 不能正坐 當令側臥 挽上臂 令取穴灸之. 又當灸臍下 氣海 丹田 關元 中極 四穴中取一穴. 又灸足三里 以引火氣實下.

主無所不療 羸瘦虛損 傳尸骨蒸 夢中失精 上氣咳逆 發狂 健忘 痰病.

左傳成公十年, 晉侯疾病, 求醫于秦. 秦使醫緩爲之. 未至, 公夢疾爲二豎子, 曰, “彼, 良醫也, 懼傷我, 焉逃之?” 其一曰, “居肅之上, 膏之下, 若我何?” 醫至曰, “疾不可爲也, 在肅之上, 膏之下, 攻之不可, 達之不及, 藥不至焉, 不可爲也.” 公曰, “良醫也.” 厚爲之禮而歸之.

孫思邈曰: 時人拙 不能得此穴 所以宿疴難遣 若能用心方便求得 灸之 疾無不愈矣.

按此二穴 世皆以爲起死回生之妙穴 殊不知病有淺深 而醫有難易 淺者針灸 可保十全 深者亦未易爲力. 扁鵲云: 病有六不治. 經云: 色脈不順而莫針也. 肅, 鬲也. 膏也. 人年二旬後 方可灸此二穴 仍灸三里二穴 引火氣下行 以固其本. 若未出幼而灸之 恐火氣盛 上焦作熱. 每見醫家不分老少 又多不針瀉三里 以致虛火上炎 是不經口授而妄作也. 豈能瘳疾哉? 患者灸此 必針三里或氣海 更清心絕欲 參閱前後各經調攝 何患乎疾不瘳也?

膏肅俞는 四椎의 아래쪽 一分과 五椎의 위쪽 二分의 兩쪽 곁으로, 脊椎로부터 각각 三寸씩 서로 떨어진 四肋三間이다. 正坐하여 등을 구부리고, 양손을 뻗어서 팔을 무릎 앞에 똑바르게 두고, 엄지를 무릎 끄트머리와 나란하게 하고, 물건으로 팔꿈치를 支持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取한다. 銅人에 (이르기를) 百壯을 뜨고, 많게는 五百壯까지 뜬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마땅히 氣가 躑躅然히 물 흐르는 모양과 같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또한 마땅히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만약 停痰과 宿飲이 없으면 내

려오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만약 病人이 이미 困極하여서 正坐할 수가 없으면, 마땅히 側臥하게 하고 上臂를 당겨서 取穴하여 뜸뜨게 하라.

또 마땅히 臍下에 뜸을 뜨되 氣海 丹田 關元 中極 四穴 中에서 一穴을 취하고, 또 足三리를 뜸뜨서 火氣의 實함을 이끌어 내려가게 해야 한다.

主掌(管掌)함에 羸瘦虛損 傳尸骨蒸 夢中失精 上氣咳逆 發狂 健忘 痰病을 治療하지 못함이 없다.

左傳 成公 十年에 晉侯의 病이 깊어져서 醫師를 (이웃인) 秦나라에서 구하니, 秦나라(秦나라 諸侯)가 醫師 緩(以下 醫緩이라 함)으로 하여금 治療하게 하였는데, (醫緩이 晉나라에) 아직 이르기 전에, 公(晉侯)이 꿈을 꾸었는데, 疾病이 두 豎子(童子)가 되어 (나타나) 말하기를 “저 사람(醫緩)은 훌륭한 의사(良醫)라서 우리를 다치게 할까 두려우니, 어떻게 도망갈까?” 하니, 그중 하나가 말하기를 “肅의 위쪽 膏의 아래쪽에 居處하면, 네(醫緩)가 나를 어떡하겠는가?” 하였다.

醫師(醫緩)가 와서 (진찰하고) 말하기를 “疾病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疾病이) 肅의 위쪽 膏의 아래쪽에 있어서, (뜸으로) 攻擊할 수도 없고, (鍼으로) 到達할 수도 없으며, 藥으로도 이를 수 없으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公(晉侯)이 말하기를 “훌륭한 醫師(良醫)로다.” 하고, 厚히 禮를 베풀어서 돌려보냈다.

孫思邈이 말하기를 “當時 사람들이 拙劣하여 능히 이 穴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묵은 病을 除去하기 어려웠으니, 만약 능히 마음으로 方便을 찾아서 뜸뜨다면 낮지 않을 疾病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살펴 보건대 이 두 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起死回生의 妙穴로 여기는데, (이렇게 여기는 것은) 病에는 淺深(깊고 얕음의 차이)이 있고 病을 치료하는 것에는 難易(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있어서, 淺者(病이 가벼운 者)는 針놓고 뜸뜨면 (열명을 치료하여) 열

을 (모두) 온전히 지킬 수 있지만, 深者(病이 깊은 者)는 또한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扁鵲이 말하기를 “病에는 여섯 가지 不治病이 있다.”라고 하였고, 經에 이르기를 “色과 脈이 (서로) 順하지 아니하면 針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肓은 膈이며 膏이다. 사람이 스무 살이 된 뒤에야 百骸로 이 두 穴에 뜬뜨고, 因하여 三里 二穴을 뜬뜨서 火氣를 이끌어 아래로 行하게 하여, 그 根本을 堅固하게 할 수 있다. 만약 幼年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뜬뜨면, 火氣가 盛하여져서 上焦가 뜨거워질까 두렵거늘, 耆老 醫師들이 老少를 區分하지 않고, 또한 대부분 三里를 針으로 瀉하지 아니하여서, 虛火가 上炎하게 하는 것을 보니, 이는 말해 주는 것을 따르지 않고 妄靈되게 지어내는 것이니, 어찌 능히 疾病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患者가 여기에 뜬뜨고, 반드시 三里나 氣海를 刺鍼하고, 다시 마음을 맑게 하여 慾心을 끊어버리고, 前後의 各經을 살피서 調攝한다면, 어찌 疾病이 낫지 않음을 근심하겠는가?

III. 考 察

1. 膏肓의 名稱과 位置

膏와 肓은 靈樞에서 “膏之原，出於鳩尾，鳩尾一。肓之原，出於腓肭，腓肭一。”이라 하였고, 素問에서 “肓之原在齊下”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각각 별개의 概念이다. 그러므로 膏肓이라고 하였을 때는 左傳에서 말한 바와 같이 “肓之上，膏之下”를 말하거나, 備急千金要方에서 말한 바와 같이 “膏之上，肓之下”를 말함을 알 수 있다. 圖書集成醫部全錄에 인용된 搜神記라는 책에도 備急千金要方과 같이 “膏之上，肓之下”라고 되어 있으나¹⁸⁾, 醫學入門과 針灸大

成이 모두 左傳의 說明을 따랐으며, 文獻의 年代나 權威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春秋左氏傳의 “肓之上，膏之下”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左傳의 註에 따르면 “肓은 膈也요, 心下 爲膏라”라고 하였고¹⁹⁾, 說文解字에서는 “肓은 心下膈上이라”라고 하였으며²⁰⁾, 이 책의 注에서 段玉裁가 풀어서 말하기를 “膈上이 肓이요, 肓上이 膏요, 膏上이 心이라.”라고 하였으니, 綜合해 보면, 膏는 心臟의 下部가 되고, 肓은 橫膈膜이 되며, 膏肓은 “心臟의 下部와 橫膈膜의 사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靈樞에서 “膏의 原穴은 鳩尾穴이고, 肓의 原穴은 腓肭(氣海의 異名)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五臟의 原穴과 같은 比重으로 論한 것을 보면, 初期 韓醫學에서는 膏와 肓이 五臟과 同等할 정도로 重要的 概念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五臟과 十二原穴 특히 大陵穴을 言及하면서도 心包는 言及하지 않고, 대신에 膏와 肓을 言及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아마도 心包라는 概念이 五臟의 概念보다 늦게 형성되었고, 초기에는 膏와 肓이 이를 代身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 部分은 추가적인 研究 檢討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2. 膏肓俞의 名稱과 位置

膏肓俞라는 穴名은 針灸甲乙經까지는 發見되지 않는다. 備急千金要方에서 最初로 言及된 이후에, 膏肓俞穴을 혹자는 膏肓輸라고 하고²¹⁾, 혹자는 膏肓俞라고 하고^{22)~24)}, 혹자는 膏肓^{25), 26)}이라고 하는 등 名稱에 혼란이 있어 왔다. 前述한 膏肓의 名稱을 고려해 볼 때, 膏肓俞穴을 膏肓이나 膏肓穴로 부르는 것은 잘못임이 明白하다.

中文大辭典에 따르면 “俞는 背脊也니 與膈로 通이라.”하고, 集韻을 인용하여 “膈는 五臟의 膈穴이니 通作俞라.”하였다²⁷⁾. 여기서 背脊也라 한 것은 素問 奇病論에 “治之以膽募俞”라 한 곳의 王冰 註에 “胸腹曰募 背脊曰俞”²⁸⁾라 한 것을 잘못 理解한 것으로

보인다. 王水 註의 뜻은 “胸腹에 있는 것을 일러서 募라 하고, 背脊에 있는 것을 일러서 俞라고 한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中文大辭典의 背脊 云云한 부분은 “俞는 背脊之穴也니 與 腧로 通이라.”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輸도 中文大辭典에 따르면 經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史記列傳의 扁鵲倉公列傳에도 “五藏之輸”라는 말이 보이고²⁹⁾, 그 注解를 보면 難經 六十六難의 句節을 引用한 “十二經은 皆以 輸로 爲原也라.”라는 말이 보이는데²⁹⁾, 이는 六十六難에서 “十二經이 皆以 輸로 爲原者는 何也요.”³⁰⁾라고 한 部分의 意味만 取한 것이다. 따라서 俞를 輸로도 通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膏肓俞라는 것은 膏肓의 腧穴이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膏와 肓의 腧穴이요, 肓之上膏之下의 腧穴이다. 다시 말하면 膏와 肓 사이의 疾病을 다스릴 수 있는 背部 腧穴이 바로 膏肓俞이고, 膏肓俞라는 經穴은 적어도 晉의 皇甫謐이 針灸甲乙經을 지은 시기 以後와 唐의 孫思邈이 備急千金要方을 지은 시기 사이에 고안된 經穴로 보이는데, 現在로서는 孫思邈의 考案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3. 膏肓俞의 取穴法

膏肓俞의 取穴法을 說明하는 句節 중에서, 醫學入門에서 “四肋三間 胛骨之裏 肋間空處 容側指許”라 한 부분과, 針灸大成에서 “四椎下一分 五椎上二分 兩旁相去脊各三寸 四肋三間”이라 한 部分의 “四肋三間”이란 구절은 備急千金要方에서 “從胛骨上角 摸索至胛骨下頭 其間 當有四肋三間 灸中間 依胛骨之裏 肋間空 去胛骨 容側指許”라고 한 部分의 “四肋三間”을 참조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國譯編註醫學入門에서는 “四肋三間胛骨의 속 肋間空處로 가면...”이라고 翻譯하였는데, 取穴할 때에는 마땅히 孫思邈이 “肩胛骨의 위쪽 모서리로부터

더듬어 찾아서 肩胛骨의 아래 끄트머리까지 이르면, 그 사이에 마땅히 네 개의 肋骨과 세 곳의 빈 空間이 있을 터이니, 가운데 空間을 뜯는다.”라고 한 것을 따라야 한다.

針灸資生經도 備急千金要方의 取穴法을 그대로 따랐으며³¹⁾, 末尾에 自身의 臨床 經驗으로 取穴하는 方法을 附記하고 있는데, “令病人兩手交在兩膊上 胛骨遂開 其穴立見 以手指摸索第四椎下兩旁各三寸 四肋三間之中間 按之酸疼是穴 灸至千百壯 少亦七七壯 當依千金 立點立灸 坐點坐灸 臥點臥灸云”이라 하여³¹⁾, 환자로 하여금 양손을 交叉하여 양쪽 팔위에 두게 하면 肩胛骨이 열려서 膏肓俞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總括해 보면, 膏肓俞穴은 보통 姿勢에서는 肩胛骨의 아래에 감춰져 있으므로, 반드시 양팔을 앞으로 伸展하여 肩胛骨이 충분히 開離되게 해야 하고, 治療時 뜯드는 壯數가 비교적 많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편안히 앉거나 옆으로 눕거나 엎드리게 하고, 앞은 경우에는 伸展된 팔의 팔꿈치를 支持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取穴의 要領이 되며, 이렇게 한 다음, 손으로 肩胛骨의 위쪽 모서리와 아래쪽 끄트머리 사이를 더듬어서, 네 개의 肋骨과 그 사이의 세 칸의 空間을 확인하여 가운데 空間을 取하되, 肩胛骨의 邊緣으로부터 一橫指쯤 떨어진 곳을 取하는데, 손가락으로 눌러봐서 흉곽 안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있는 곳을 取하면 된다.

4. 膏肓俞의 主治症

膏肓俞의 適應症에 관한 記錄을 살펴보면, 孫思邈은 “無所不治 主羸瘦虛損 夢中失精 上氣欬逆 狂惑忘誤”라 하였고, 李梴은 “主陽氣虧弱 諸虛痼冷 夢遺 上氣 飢逆膈噎 狂惑忘誤 百病”이라 하였고, 楊繼洲는 “主無所不療 羸瘦虛損 傳尸骨蒸 夢中失精 上氣 咳逆 發狂 健忘 痰病”이라 하였다.

어느 경우이든지 膏肓俞에 뜯을 뜨면 陽氣가 盛해진다고 보았으며, 楊繼洲의 경우에는, 幼年(20歲)이

前)에 膏育俞를 뜬뜨거나, 20勢 以後라도 膏育俞를 뜬뜬 때에 足三里를 함께 瀉해 주지 않으면, 虛火가 上炎하게 하는 副作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이 두 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起死回生の 妙穴로 여기는데, (이렇게 여기는 것은) 病에는 淺深(깊고 얕음의 차이)이 있고 病을 치료하는 것에는 難易(쉽고 어려움의 차이)가 있어서, 淺者(病이 가벼운者)는 針놓고 뜬뜨면 (열명을 치료하여) 열을 (모두) 온전히 지킬 수 있지만, 深者(病이 깊은者)는 또한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膏育俞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起死回生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IV. 結 論

膏育과 膏育俞에 關聯된 內容을 關聯 文獻에서 拔萃하여 直譯하고, 이를 土臺로 膏育과 膏育俞의 名稱과 位置 및 膏育俞의 取穴法과 主治症에 關하여 考察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膏와 育은 원래 別個의 概念이었으며, 膏育은 “育之上, 膏之下”의 줄임말로써 “心臟의 下部와 橫膈膜의 사이”를 말한다.

2. 膏와 育 사이의 疾病을 다스릴 수 있는 背部 腋穴이 바로 膏育俞이므로, 이를 膏育이나 膏育穴로 불러서는 안된다.

3. 膏育俞라는 經穴은 적어도 晉의 皇甫謐이 針灸甲乙經을 지은 時期 以後와 唐의 孫思邈이 備急千金要方을 지은 時期 사이에 考案된 經穴로 보이는데, 現在로서는 孫思邈의 考案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4. 醫學入門과 針灸大成의 膏育俞 取穴法에 나오는 “四肋三間” 관련 句節은 針灸資生經에 “四肋三間之中間”이라고 한 것을 잘못 引用하였거나, 孫思邈의 取穴法의 본뜻을 잘못 理解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孫思邈이 “從胛骨上角으로 摸索하여 至胛骨下頭하면 其間에 當有四肋三間이니 灸中間하라.”라고 한 것에서 나온 句節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5. 膏育俞穴은 보통의 姿勢에서는 肩胛骨의 아래에 감춰져 있으므로, 반드시 양팔을 앞으로 伸展하여 肩胛骨이 충분히 開離되게 해서 取穴해야 한다.

6. 膏育俞의 主治症은 考察에 言及된 바와 같으며, 陽氣를 盛하게 하는 穴性을 가지고 있다.

V. 參考文獻

1. 李梴：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39.
2. 左丘明：春秋左氏傳, 서울, 保景文化社, 1990, pp.223-224.
3. 孫思邈：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41.
4. 崔容泰·李秀鎬：精解鍼灸學, 서울, 행림출판, 1985, pp.396-397.
5. 馬元臺·張隱庵：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民國七十年, 靈樞 pp.9-11.
6. 皇甫謐：針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9-10.
7.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82年, 8卷 p.1211.
8. 馬元臺·張隱庵：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民國七十年, 靈樞 pp.9-11.
9. 皇甫謐：針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 1982, pp.9-10.
10. 張介賓：類經，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0，p. 248.
 11. 皇甫謐：針灸甲乙經，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47.
 12. 馬元臺·張隱庵：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臺北，台聯國風出版社，民國七十年，素問 p.280.
 13. 孫思邈：備急千金要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p.540-541.
 14. 李梴：醫學入門，서울，翰成社，1984，pp.135-136.
 15. 李梴：國譯編註醫學入門，서울，南山堂，1988，pp.886-887.
 16. 楊繼洲：鍼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p.302-303.
 17. 黑龍江省祖國醫藥研究所：針灸大成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4，pp.843-845.
 18. 陳夢雷：圖書集成醫部全錄，臺北，新文豐出版公司，民國 68，20卷 p.75.
 19. 左丘明：春秋左氏傳，서울，保景文化社，1990，p.223.
 20. 許慎：說文解字，臺北，天工書局，民國85，p. 168.
 21. 孫思邈：備急千金要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540.
 22. 王執中：針灸資生經，臺北，旋風出版社，民國69年，p.32.
 23. 高武：針灸聚英，臺北，新文豐出版社，民國69年，p.67.
 24. 楊繼洲：鍼灸大成，서울，大星文化社，1990，p. 302.
 25. 滑伯仁：十四經發揮，臺北，旋風出版社，民國69年，p.43.
 26. 李梴：醫學入門，서울，翰成社，1984，pp.71, 135.
 27.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中文大辭典，臺北，中國文化大學出版部，民國82年，1卷 p.1391.
 28. 馬元臺·張隱庵：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臺北，台聯國風出版社，民國七十年，素問 p.325.
 29. 司馬遷：史記列傳，서울，保景文化社，1997，p. 287.
 30. 秦越人：難經集註，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85.
 31. 王執中：針灸資生經，臺北，旋風出版社，民國 69，p.32-33.